

학교 문법의 의존성 단어 처리 방식에 나타난 혼란상 고찰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을 중심으로-

김문기(동아대)

<차 례>

1. 머리말
 2. 학교 문법 교과서의 의존성 범주 분석
 3. 의존성 범주의 특성과 국어의 규범
 4. 맺음말
-

【벼리】 이 글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국어의 문법 단위 가운데 ‘단어’에 해당하면서도 단어의 온전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 범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어의 기본적 조건은 자립성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기본적 속성은 자립성이라기보다는 의존성에 가깝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 속성을 의존성이라 인정한다 해도, 학교 문법에서 이들을 동일한 문법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이들 문법 범주들과 관련된 교육 내용과 <탐구> 활동을 분석하여, 그 긴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의 이들에 대한 처리 방식과 국어의 규범인 한글 맞춤법과 국어사전에서의 처리 방식 등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들의 문법 범주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찰해 보았다.

* 주제어 : 학교 문법, 한글 맞춤법, 국어사전, 단어, 자립성, 의존성, 문법
범주, 의존 명사, 보조 용언, 띄어쓰기

1. 머리말

국어에서 ‘단어’라는 문법 단위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문법인 교육과학기술부(2009:82)¹⁾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을 단어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를 한 이유는 학교 문법에서 조사에 단어의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론 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를 ‘최소 자립 형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절’에 대한 개념 정의와 상통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단어’를 ‘최소 자립 형식’이라 한 것은 곧 일반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라는 특정 언어에 나타나는 문법 단위에 대해 개념 정의를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학교 문법과 이론 문법의 측면에서 단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완전히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어가 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자립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의 경우는 온전한 자립성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 (1) ㄱ. 모자를 쓴 철수가 저기 있다.
- ㄴ. 모자를 쓴 것이 저기 있다.

1) 이 글에서 논의의 자료로 삼은 교육과학기술부(2009, 2010)는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에 해당한다. 현행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이 또 개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자료로 삼은 것이다.

(2) ㄱ. 철수가 밥을 먹었다.

ㄴ. 철수가 밥을 먹어 버렸다.

(1ㄴ)은 의존 명사이고, (2ㄴ)은 보조 용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전한 자립성을 갖춘 범주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큰 범주²⁾로는 명사와 용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을 단어로 인정한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작은 범주로서 이들은 의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 그 용어도 통일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³⁾

이 글에서는 학교 문법의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을 중심으로,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이들과 관련하여 제시된 교육 내용과 <탐구> 활동의 관련성을, 그리고 국어의 규범과의 관련성을 ‘의존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2. 학교 문법 교과서의 의존성 범주 분석

학교 문법에서 단어이지만 의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범주로는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2009)와 교육과학기술부(2010)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의존 명사에 대해 살펴보자. 교육과학기술부(2009:90~91)에서는 ‘체언’ 부분에서 ‘명사의 개념’과 그 일반적인 ‘부류(고유 명사 보통 명사 의존 명사 자립 명사)’⁴⁾를 제시하였다. 이때 ‘의존 명사’를 “명사 중에는 반드시

2) 이때 ‘큰 범주’는 상위 범주로서 포괄적인 범주의 개념에 해당하고, ‘작은 범주’는 하위 범주로서 개별적인 범주의 개념에 해당한다.

3) 특히 용어의 경우에는 의존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존 명사와 의존 용언’처럼 통일시키는 것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의존성’에서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이 공통점을 보이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보이므로 용어까지 통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다루겠다.

4) 고유 명사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통 명사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시 그 앞에 꾸며 주는 말, 즉 관형어가 있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아래의 예를 제시하였다.⁵⁾

(3) ㄱ. 너는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할 용기가 있느냐?

ㄴ. 사과 두 개, 구두 한 켤레, 선생님 열 분, 백 원, 오 킬로그램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것’과 단위성 의존 명사 동일 것이다. 그런데 (3ㄱ)에서는 ‘대로’를 제시했다. 적어도 교과서에서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할 때에는 가장 전형적인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탐구〉 활동에서는 아래의 지문으로 ‘명사 찾기,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구별하기,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 구분하기’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4) 선암사 뒷산에는 산수유가 피었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렵פות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다. 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는 눈치 채기 어렵다. 그 그림자 같은 꽃은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스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스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 김훈 ‘자전거 여행’에서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고유 명사보다는 보통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의 경우에는 명사가 자립성을 갖춘 단어라는 점, 실제 사용에서 자립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 등에서 자립 명사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학교 문법에서는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위해 제시한 예문이 하나뿐이고, 자립 명사를 위한 예문은 없다. 이에 비해 의존 명사를 위한 예문을 두 개 제시했다는 점은, 그만큼 의존 명사가 학습할 의의가 있음을 보여 준다.

(37)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전형적인 의존 명사에 해당되는 것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지 않고 〈활동〉에만 제시한 의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명사의 학습 내용과 그 하위 부류에 해당하는 예가 골고루 연습되도록 하지 못했다. 즉, (4)에서 학습 내용으로 제시한 의존 명사의 예인 (3)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4)에서 의존 명사는 ‘것’ 하나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0:123)에서는 의존 명사의 예로 ‘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2010:123~125)에 제시한 〈활동〉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5) 7. 활동 목표 및 취지: 첫 번째 활동에서는 글 속에서 명사를 찾아 이를 하위 부류로 나누어 봄으로써, 명사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초코파이’의 경우를 통하여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로 변화, 또는 전이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한다.

ㄴ. 지도 방법: 상표권 분쟁에 대한 글 속에는 ‘초코파이’를 고유 명사로 인정하고자 하는 업체 측의 의견과 이를 보통 명사로 보고자 하는 타 업체 측의 주장이 모두 담겨 있다. 양측의 의견은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가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개념에 유의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ㄷ. 활동 풀이:

1. 보기 중에서 명사를 찾아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누어 보기(이하 생략)
2.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의 차이점 알아보기(이하 생략)

(5)에 나타난 〈탐구〉 활동의 주된 목표와 취지는 결국 ‘명사 찾기, 명사의 하위 부류 알기,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의 구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의존

명사에 대한 활동은 학습 내용에서의 제시 분량에 비해 아주 적다.⁶⁾

다음으로 보조 용언에 대해 살펴보자. 교육과학기술부(2009:100~101)에서 보조 용언을 “용언 중에는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

- (6) ㄱ. 이 소리를 한번 들어 보아라.
- ㄴ. 공책을 책상 위에 얹어 두었다.
- ㄷ. 나도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싶다.
- ㄹ.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

(6)의 예를 제시하여 그 활용의 양상을 통해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나서 본용언의 개념을 “이들이 뜻을 더하여 주는 앞의 용언들”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는 제시하지 않았다.

〈탐구〉 활동으로는 아래와 같이 ‘보조 용언 찾기, 보조 용언인 이유 이야기하기’를 제시하였다.

- (7) ㄱ. 다음에서 보조 용언을 있는 대로 가려 내어 보자.

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콩이나 빵 부스러기 같은 먹을 것을 놓아 준다. 박새가 더러 오는데, 박새한테는 좁쌀이 필요하니까 장에서 사다가 주고 있다. 고구마도 짐승들과 같이 먹는다. 나도 먹고 그 놈들도 먹는다. 밤에 잘 때에는 이 아이들이 물 찾아 개울로 내려 온다. 눈 쌓인 데 보면 개울가에 발자국이 있다. 토끼 발자국도 있고, 멧돼지 발자국도 있다. 물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질녘에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구멍을 만들어 둔다. 물구멍을 하나만 두면 그냥 얼어 버리기 때문에 숨구멍을 서너 군데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통해 잘 얼지 않는다. 그것도

6) (4)에 제시된 제시문의 의존 명사는 “언제 지는 것인지”와 “자신을 지우는 것” 두 개인데도, 이에 대한 풀이에서는 전자의 것만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124).

- 굳이 말하자면 내게는 나눠 가지는 기쁨이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 법정 ‘버리고 떠나기’에서
- ㄴ. 다음의 밑줄 친 말들에서 보조 용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밝혀 보고,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여 보자.
-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 새 자정이 되었다.
 - 그 편지를 누가 볼까 봐 그러니?
 - 내가 그런 시시한 영화를 볼까 보냐?
 - 우선 얼굴부터 보고 보자.

보조 용언은 그 개념에서처럼 ‘뜻(의미)’과 관련이 있는데도, 뜻과 관련된 학습 내용은 없다. 다만 활용의 양상에 따라 품사 범주가 나뉜다는 언급뿐이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2010)에도 뜻에 대한 지도 내용은 없다.

(6ㄱ) 중 (7ㄱ)에 제시된 것은 ‘두다, 앓다’이다. 이는 앞의 의존 명사 부분 보다는 좀 더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에 연계성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7ㄴ)의 활동은 이보다 심화된 활동으로서 동일한 형태의 용언이 연결되면서 후행 용언이 보조 용언이 되는 것, 본용언에 종결 어미가 실현된 것 등이 뒤섞여 있다. 또한 (7ㄴ)은 국어사전에서 보조 용언을 다의어로 처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곧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적 차이 또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7ㄴ)의 활동은, 학습 내용만 바탕으로 해서는 학습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2010:137~138)의 〈탐구〉 활동 풀이는 다음과 같다.

- (8) ㄱ. 활동 목표 및 취지: 첫 번째 활동에서는 주어진 자료에서 보조 용언을 찾아보고 각각의 보조 용언이 문장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는지 살펴본다. 보조 용언은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본용언의 어미가 ‘-아/-어, -게, -지, -고’로 한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 의미

를 변별함으로써, 보조 용언의 특성을 파악하여 본다.

- ㄴ. 지도 방법: 보조 용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보조 용언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보조 용언은 자립성이 없으며,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게재될 수 없다. 그리고 대형(代形)으로 대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조 용언의 문법적인 특성과 문장 속에서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보조 용언을 찾도록 한다. “공책을 책상 위에 얹어 두었다.”에서 ‘얹어 두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복합 구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ㄷ. 활동 풀이:

1. 보조 용언 찾기: 준다, 있다, 둔다, 내리기, 놓이면, 앉는다
2. 보조 용언에 해당하는 부분 찾고, 그 이유 알아보기

‘보다’가 동사로 쓰일 때에는 ‘사물의 모양을 눈을 통하여 알다, 알려고 두루 살피다, 구경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단어가 동사 어미 ‘-아/-어’ 등의 다음에서 보조 동사로 쓰일 때에는 ‘시험삼아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형용사나 동사의 어미 ‘-ㄴ가’, ‘-는가’, ‘-ㄹ까’, ‘-을까’ 등의 다음에서는 추측이나 막연한 의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때는 보조 형용사의 구실을 한다.

일반적으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순서는 ‘본용언 + 보조적 연결 어미(-아/-어, -게, -지, -고) + 보조 용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 첫 번째 예문인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 새 자정이 되었다.”의 ‘보다 보니’는 ‘-다 보다’의 형태이므로 뒤의 ‘보다’는 보조 동사가 된다. 두 번째 예문 “그 편지를 누가 볼까 봐 그러니?”의 ‘볼까 봐’와 세 번째 예문인 “내가 그런 시시한 영화를 볼까 보냐?”의 ‘볼까 보냐’에서 ‘봐’와 ‘보냐’는 의문형 어미와 결합하여 보조 형용사로 쓰였다. 그리고 네 번째 “우선 얼굴부터 보고 보자.”의 ‘보고 보다’는 ‘-고 보다’의 형태로, 뒤의 ‘보다’는 보조 동사로 쓰였다.

보조 동사로 쓰인 ‘보다’는 구체적인 동작이 전제된 ‘해보기, 시행’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작의 결과에 대한 확인이나 지각, 경험의 뜻’도 담고 있다. 반면 보조 형용사로

쓰인 ‘보다’는 선행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하여 화자가 추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때의 추정은 문장상의 주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장의 발화자, 즉 화자의 추정이다.

(8)을 통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학습 내용과 〈탐구〉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지 못하였다. 이는 학습 내용에 보조 용언 설정의 기준과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탐구〉에만 제시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보조적 연결 어미의 양상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곧 (7ㄱ)에는 본용언의 어미가 ‘-아/-어, -지, -고’인 예만 있는데, (8ㄱ)의 활동 목표 및 취지에서는 ‘-아/-어, -게, -지, -고’를 언급하였다.⁷⁾

셋째, 학습 내용에 없는 보조적 연결 어미를 〈탐구〉에서 갑자기 제시하였다. 이는 (7ㄴ)에서 연결 어미 ‘-다가’의 줄임꼴인 ‘-다’, 종결 어미 ‘-을까’, 연결 어미 ‘-고’를 본용언의 어미로 실현된 예로 제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경우 이들을 보조적 연결 어미라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조 용언을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넷째, 활동과 그 풀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7ㄴ)은 보조 용언을 찾고, 그것이 왜 보조 용언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8ㄴ)의 풀이는 실현 환경에 따른 보조 동사나 보조 형용사의 구분, 새로운 보조적 연결 어미 제시,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의 의미 차이를 다루었다.⁸⁾

7) 또한 (7ㄱ)의 풀이인 (8ㄴ)의 1을 보면, 정답이 잘못되어 있다. 즉, 정답은 ‘준다, 있다, 둔다, 버리기, 놓으면, 않는다’인데, 풀이에는 ‘준다, 있다, 둔다, 내리기, 놓으면, 않는다’로 제시되어 있다.

8) ‘보다’가 동사 어미 ‘-아/어’ 등의 뒤에 실현될 때에는 보조 동사이고, 형용사나 동사의 어미 ‘-ㄴ가’, ‘-는가’, ‘-을까’ 등의 뒤에 실현될 때에는 보조 형용사라 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보다’ [III] 「1」, 「2」 참조). 또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다 보니’와 ‘보고 보자’의 ‘-다’와 ‘-고’가 보조적 연결 어미라고만 했다(『표준』의 ‘보다’ [III] 「4」와 [III] 「4」 참조). 그리고 동일 용언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 들었다. 이는 결국 보조 용언 범주의 설정 기준과 그 목록 설정,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의 구별에 대한 충분한 학습 내용이 없음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다섯째, 예시 문장에서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7ㄴ)의 “우선 얼굴부터 보고 보자.”에서 ‘보자’는, 상황에 따라 이 문장을 홀문장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조 용언일 수도 있고, 본용언일 수도 있다. 즉, “우선 얼굴부터 보고 (팔을) 보자.”처럼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겹문장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탐구>와 그에 대한 지도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8ㄴ)에서는 (7)의 <탐구>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보조 용언을 찾기 위해서는 보조 용언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하였다. 그런데 학습 내용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없을뿐더러 <탐구>만으로 이를 추출해 내기란 더 곤란하다. 게다가 <탐구>는 보조 용언 찾기와 보조 용언의 의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3. 의존성 범주의 특성과 국어의 규범

여기에서는 의존성 범주인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들의 범주적 특성과 한글 맞춤법과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3.1. 의존 명사 구성

3.1.1. 의존 명사의 범주적 특성

학교 문법에서는 의존 명사를 명사의 하위 갈래로서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쓰일 수 있다는 의존성 때문에 온전한 단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의존성 때문에 의존 명사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용언의 어간, 조사, 어미, 접사 등과 유사한 부류라 할 수 있다.

(9) ㄱ. 철수가 집-에 가왔다.

ㄴ. 꽃-사과가 나무에 열-리-어 있다.

(9ㄱ)의 ‘가’처럼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로서 자신이 중심 요소가 되어 그 뒤에 다른 문법 요소가 결합된다. ‘가’는 형태론적으로는 자립 요소가 아니라서 단어라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사·의미론적으로는 용언 어간이 다른 문장 성분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9ㄱ)에서 조사인 ‘-가, -에’, 어미인 ‘-았다’는 앞 말에 결합되어야 쓰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중심 요소가 되지 못하며 단어라 하기 곤란하다. (9ㄴ)에 실현된 접사를 보면 접두사는 어근 앞에, 접미사는 어근 뒤에 결합되는 문법 요소로서 단어는 아니다.⁹⁾

의존 명사의 경우는 이들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0) ㄱ. 우리는 철수가 가지고 온 것을 보았다.

ㄴ. 차마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다.

ㄷ. 영이는 선생님을 보고 어쩔 줄을 몰랐다.

ㄹ. 이 점이 우리가 불쌍히 여긴 바였다.

일반적인 한국어 통사 구조는 ‘수식어 + 피수식어’의 구조로서, ‘중심어 뒤 구성’에 해당한다. 이때 의존 명사는 피수식어로서 그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사론적으로는 의존 명사가 중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의존 명사는 형식 형태소에 가까울 정도로 그 의미가 추상화되어 있다. 곧 수식어가, 형식적(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의 의미를 구

9) 접사의 경우, ‘접두사 + 어근(중심어) + 접미사’의 구조를 형성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 준다. 그런데 접두사는 뒤 어근의 의미를 수식하고, 접미사는 앞 어근의 의미에 다른 문법적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접두사와 접미사는 접사라는 문법 범주로 묶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접두사는 ‘수식’, 접미사는 ‘부가’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적으로 나타내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론적으로는 의존 명사가 중심 요소가 아니라 수식어가 중심 요소가 된다 할 수 있다.

3.1.2. 의존 명사와 한글 맞춤법

의존 명사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의 조항은 주로 띄어쓰기에 제시된다. 띄어쓰기는 학교 문법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지켜 사용하기 어려운 규정이라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학교 문법과 일반 대중을 동시에 고려한 띄어쓰기 규정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11)¹⁰⁾ 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ㄴ.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패**

10) (11ㄱ)은 의존 명사이지만, (11ㄴ~ㄷ)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① 의존 명사: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채, 켤레, 패, 시, 분, 초, 동, 호, 원, 개, 미터, 겹, 대, 등, 등등, 등속, 등지, 곳, 것

② 명사: 자루, 죽, 과, 학년, 년, 월, 일, 대대, 때, 말, 잎

③ 부사: 내지, 몇

여기서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모두가 의존 명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1) (11ㄱ)은 의존 명사이지만, (11ㄴ~ㄷ)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① 의존 명사: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채, 켤레, 패, 시, 분, 초, 동, 호, 원, 개, 미터, 겹, 대, 등, 등등, 등속, 등지, 곳, 것

② 명사: 자루, 죽, 과, 학년, 년, 월, 일, 대대, 때, 말, 잎

③ 부사: 내지, 몇

여기서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모두가 의존 명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3대대 16동 502호 제1어학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 ㄷ.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결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 ㄹ.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11)에서 보듯이, 의존 명사를 단어로 인정했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다. 학교 문법에서 의존 명사를 처리하는 방식과 같다.¹⁴⁾ 결국 의존 명사를 학교 문법에서처럼 단어로 처리하여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의 원칙을 정한 대

12) (11ㄱ)은 의존 명사이지만, (11ㄴ~ㄹ)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① 의존 명사: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채, 컬레, 꽤, 시, 분, 초, 동, 호, 원, 개, 미터, 겹, 대, 등, 등등, 등속, 등지, 곳, 것

② 명사: 자루, 죽, 과, 학년, 년, 월, 일, 대대, 때, 말, 잎

③ 부사: 내지, 및

여기서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모두가 의존 명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3) (11ㄱ)은 의존 명사이지만, (11ㄴ~ㄹ)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① 의존 명사: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채, 컬레, 꽤, 시, 분, 초, 동, 호, 원, 개, 미터, 겹, 대, 등, 등등, 등속, 등지, 곳, 것

② 명사: 자루, 죽, 과, 학년, 년, 월, 일, 대대, 때, 말, 잎

③ 부사: 내지, 및

여기서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모두가 의존 명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4) 정희창(2010:235~237)에서처럼 ‘규범 문법’, ‘어문 규범’, ‘규범 사전’이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범 문법은 어문 규범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므로 규범 문법에 따라 어문 규범이 영향을 받는다.

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11)에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허용 규정인 (11ㄴ)의 ‘다만’, (11ㄹ)을 삭제하는 것이 띄어쓰기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수와 관련된 (11ㄴ)의 ‘다만’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대중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보조 용언 구성

3.2.1. 보조 용언의 범주적 특성

보조 용언의 범주적 특성은 의존 명사에 비해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보조 용언 설정의 기준이 연구자마다 다른데, 보조 용언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는지, 어떤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¹⁵⁾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학교 문법에서 보조 용언과 관련된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동 표현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피동 표현은 일반적으로 피동문으로 실현된다.

(12) ㄱ. 파생적 피동문: 파생 접사에 의한 피동문

ㄴ. 통사적 피동문: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¹⁶⁾

(13) ㄱ.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15) 이숙의(2007:425~429), 채희락(2007:824), 우순조(2010:216~220), 정희창(2010:256~257) 등 참조.

16) 교육과학기술부(2009)에는 ‘되다, 지다’가 보조 용언이라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2010:221)에서는 “통사적 피동문을 형성하는 ‘-어지다’의 경우에는 ‘지다’를 보조 용언으로 보면서, 다른 보조 용언들과 달리 ‘-어지다’를 붙여서 써 띄어쓰기 규범에서 예외적 사례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실제 학습자들이 배우는 학교 문법 교과서에는 보조 용언에 대해 제시되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에는 제시되어 있어서 ‘교과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 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ㄷ. *도둑이 경찰에게 잡게 되었다.
- ㄹ. 경찰이 도둑을 잡게 되었다.

(13ㄱ)의 능동문에 대한 피동문은 (13ㄴ)만 가능하고, (13ㄷ)은 불가능하다. (12)에서처럼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이 가능하다면, 왜 (13ㄷ)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2009, 2010) 어디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13ㄹ)도 (13ㄱ)의 피동문이라 할 수 없다. 설령 (13ㄹ)이 특수한 피동문이라 하더라도, (13ㄱ)과 동작주(능동주)와 피동주가 다르기 때문에 논항 구조와 의미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은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라 할 수 없다. 이는 보조 용언은 문장의 논항 구조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보조 용언의 일반적 특성과 대립된다. 그리고 ‘경찰이 도둑을 잡게 되었다.’는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영수 덕분에 경찰이 도둑을 잡게 되었다.’와 같은 문장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영수’에 어떠한 의미적 논항을 부여해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논항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동 표현 표현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사동 표현은 주로 사동문으로 실현된다.

- (14) ㄱ. 파생적 사동문: 접미사로 실현되는 사동문
 - ㄴ. 통사적 사동문: ‘-게 하다’로 실현되는 사동문
- (15) ㄱ. 아이가 옷을 입었다.
 - ㄴ. (∅)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 ㄷ. (∅)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주동문인 (15ㄱ)의 사동문에서 ‘입-’의 동작주는 ‘아이’이고, (15ㄴ, ㄷ)에서 ‘입-’의 동작주 역시 ‘아이’이다. 이때 ‘-하-’와 ‘-게 하-’가 실현되면서 ‘입-’의 동작주와 달리 ‘입하-’와 ‘하-’의 사동주가 있어야만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15ㄴ, ㄷ)이 홀문장인지 겹문장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해진다.

먼저 (15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15ㄴ)은 홀문장이면서도 논항 구조를 보면 ‘입-’의 동작주와 ‘입하-’의 사동주가 따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홀문장이려면 서술어는 하나이어야 하고, ‘입하-’뿐이다. 그렇다면 (16ㄱ)이 사동문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agreement)’의 관점에서는 (16ㄴ)이 그 통사 구조가 될 것이다.

(16) ㄱ. [\emptyset j 아이에게 옷을 입하-ㄴ 었다.

ㄴ. [\emptyset j 아이에게 [\emptyset i 옷을 입-하-ㄴ 었다.

(16ㄴ)으로 본다면, 용언 ‘입-’의 동작주는 ‘아이’이고 ‘입하-’의 사동주는 ‘ \emptyset ’가 된다. 이때 사동주 ‘ \emptyset ’는 본래 내포문의 동작주였던 것이 이동을 거쳐 상위문의 주어인 사동주가 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 문법의 수준에서 이러한 설명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16ㄱ)처럼 ‘입하-’가 형태·의미론적으로 ‘입하-’가 논항과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서술어라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곧 사동사 ‘입하-’ 자체가 사동주, 동작주, 대상 등을 요구하는 문형을 갖추어야 할 주된 서술어라 하겠다.¹⁷⁾

다음으로 (15ㄷ)의 통사적 사동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교육과학기술부(2009:186)와 교육과학기술부(2010:224)에서 “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붙은 ‘-게 하다’로도 실현된다.”고 하여, 피동문에서와 달리 ‘하다’가 보조 용

17) ‘입하-’라는 단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로 ‘입-’의 동작주와 ‘-하-’의 사동주가 따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문법 요소인 접사가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학교 문법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입하-’라는 단어가 문장 성분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언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동문의 ‘하다’는 학교 문법의 틀에서 보조 용언이라 하기 곤란하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함께 하나의 온전한 서술어가 되어야 하므로, 문장의 종류로 말하자면 홑문장이어야 한다. 곧 ‘하’를 보조 용언으로 본다면 (15ㄷ)은 홑문장으로서, ‘입게 하’ 전체가 하나의 서술어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15ㄴ)의 ‘입하’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어에 대한 직관상, ‘입게 하’를 하나의 서술어로 보기 어려우며 ‘-게 하’의 사동주가 따로 설정되므로 논항 구조가 바뀌는 것을 설명하기 곤란해진다.

(17) ㄱ. [(∅)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ㄴ. [(∅) 아이]에게 [∅ i 옷을 입-]게 하[였다].

학교 문법에서의 보조 용언 개념이라면 (16ㄱ)처럼 (17ㄱ)의 문장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게 하’를 ‘입하’처럼 하나의 서술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와는 달리 ‘-게’에서는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 사이의 분리성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는 종속적 연결 어미와 보조적 연결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로 쓰일 수 있는 ‘-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유보하였다.(나찬연 2012:264~265, 400~401 참조) 이는 ‘-게’의 명확한 문법적 특성을 규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하’의 문법적 특성을 단정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사동 표현의 ‘-게 하’의 ‘하’를 보조 용언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조 용언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어도 학교 문법의 틀에서는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제 부정 표현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부정 표현도 주로 부정문으로 실현된다.

(18) ㄱ. 짧은 부정문: 부정 부사 ‘안, 못’을 사용한 부정문

ㄴ. 긴 부정문: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한 부정문

(19) ㄱ. [철수가 [밥을 [못 먹는다.]]]

ㄴ. [철수가 [밥을 [먹지 못한다.]]]

ㄷ. [철수가 [[밥을 먹지(를, 는, 도, 만) 못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09:187), 교육과학기술부(2010:226)에서 모두 ‘아니다, 못하다, 말다’ 등을 ‘부정 용언’¹⁸⁾이라고만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2009)의 〈단어〉 단원에서, ‘아니다, 못하다, 말다’를 ‘-지’에 후행하는 ‘보조 용언’이라 한 것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19ㄴ)이 일반적으로 보조 용언 구성으로 알려진 부정 표현이고, (19ㄷ)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에서 띄어 써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를 이룬다고 볼 때, (19ㄷ)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통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 (19ㄷ)처럼 쓰일 때는, (20)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주로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못하다, 아니하다, 말다’를 본용언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처리 방식일 것이다. 또한 『표준』에서 이들을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이는 다의어로 처리했으므로, 본용언의 의미가 중심 의미가 되고 이에서 확장(또는 전이)된 의미가 보조 용언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20) 본용언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의 의미

ㄱ. 아니하다(동사): (...을) 어떤 행동을 안 하다. ♣ 그는 말을 않고 떠났다./꼬마는 세수를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해 엄마에게 혼이 났다.

ㄴ. 못하다

[] 동사: (...을)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18) 이때 ‘부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즉, ‘살다-죽다’, ‘좋다-나쁘다’ 등의 관계에서 본다면 ‘죽다, 나쁘다’ 등을 ‘부정 용언’이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 노래를 못하다/술을 못하다.

[] 형용사

「1」 (...보다)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건강이 젊은 시절만 못하다.

「2」 ('못해도' 꼴로 쓰여) 아무리 적게 잡아도, ♣ 잡은 고기가 못해도 열 마리는 되겠지./아무리 못해도 스무 명은 족히 넘을 것이다.

ㄷ. 말다03(동사)

「1」 (...을)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다. ♣ 저만 믿고 걱정 마세요./내 염려는 말고 나가세요.

「2」 ('-거나 말거나', '-거니 말거니', '-나 마나', '-든지 말든지', '-ㄴ(을)까 말까' 따위와 같은 구성으로 쓰여) '아니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 쳐다보거나 말거나 수군거리거나 말거나, 그녀의 태도는 당당하고 의젓했다./일어설까 말까 망설이는데 애가 잠을 깼다.

「3」 ('말고' 꼴로 명사의 단독형과 함께 쓰여) '아니고'의 뜻을 나타낸다. ♣ 너 말고 네 친구/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보조 용언의 의미와 (20)에 제시된 본용언의 의미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19ㄷ)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다른 문법 요소가 개입될 경우에는 보조 용언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학교 문법이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2. 보조 용언과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 규정하였다.

(21)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불이 꺼져 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ㄴ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이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붙여쓰기를 허용하게 되면 합성 용언과의 구별, 본용언의 파악, 어간과 어미의 경계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에서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용언으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성 용언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¹⁹⁾ 또한 보조 용언이 하나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실현될 수 있어서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색한 표기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조 용언의 붙여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조 용언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다만’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 용언의 분리성을 인정한

19) 이는 보조 용언의 쓰임이 완전히 굳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된 정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숙의(2007:430~440), 김문기(2007 ㄱ:171~179) 등 참조.

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셋째, 의존 명사와 결합한 보조 용언의 문제이다. 이것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의존 명사의 통사 구조와 보조 용언의 개념과 쓰임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22) ㄱ. 그 일은 할 만하다.

ㄴ. [그 일은 [[할] [만하다]]]

ㄷ. [[[그 일은 할] 만] 하다]

학교 문법에서 보조 용언 범주를 고려하면 (22ㄴ)이 올바른 통사 구조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학교 문법에서 의존 명사와 단어 형성의 측면 등에서 본다면 (22ㄷ)이 올바른 통사 구조가 된다. 또한 (22)에서 국어에 대한 직관상, 의존 명사와 ‘하-’ 사이에 ‘-을, -은, -도’ 등의 조사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그 분리성이 충분히 느껴진다. 특히 붙여쓰기를 허용하면, 그 구조를 (23ㄴ)처럼 보아 ‘ㄹ만하다’를 어미로 볼 수도 있게 된다.

(23) ㄱ. 그 일은 할만하다.

ㄴ. *[그 일은 하ㄹ만하다]

따라서 보조 용언의 붙여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어의 규범과 학교 문법 사이의 일관성을 갖추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글 맞춤법과 사전에서 보조 용언의 범주를 서로 다르게 파악한다는 것이다. 『표준』에서는 한글 맞춤법에서 보조 용언이라 규정한 몇몇 단어를 합성 용언처럼 표제어로 등재해 놓았다.

(24) 『표준』의 보조 용언 관련 단어의 등재 양상 몇 가지²¹⁾

20) 교육과학기술부(2009)의 〈단어의 형성〉 단원에서 ‘공부를 하다’ - ‘공부하다’와 ‘잘난 체를 하다’ - ‘잘난 체하다’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21) 이숙의(2007:4334~34)에도 이와 관련된 목록이 몇몇 제시되어 있다.

표제어로 등재됨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음
도와주다	도와드리다
잃어버리다	-
잊어버리다	-
싶다(보조 형용사로만)	-
믿음직하다, 먹음직하다 ²²⁾	-

이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거의 한 단어처럼 굳어져 쓰인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논거가 그리 강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다른 쓰임도 있다²³⁾는 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학교 문법에서 의존성을 나타내는 범주인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제시한 이들의 학습 내용과 <탐구> 활동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국어의 규범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이들 범주와 관련된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의 통사 의미론적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2) 이들은 한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아/-어/-여’ 이외의 어미 뒤에 보조 용언이 나오거나 본용언이 올 때는 띄어 쓴다.(봤음 직하다, 옴 직하다 등)

23) ‘잃.’과 ‘잊.’이 본용언으로 쓰이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내가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이젠 나한테 좀 잃어 줘. / 내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잃어 간다. / 내 선물은 잃지 마. / 제 과거는 잊어 주세요. / 이젠 나도 그날 일은 잊어 가고 있다. / 날 잊지 마세요. 등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 범주의 비교]

구분	선행어 + 의존 명사	본용언 + 보조 용언	용어
용례	철수가 <u>좋은</u> 것을 가지고 왔다.	철수가 책을 <u>버려 버렸다</u> .	
통사론적 의존성	선행어에 의존하지만, 의존 명사가 중심어	본용언에 의존하며, 본용언이 중심어(‘중심어 뒤’ 구성인 국어의 특성과 대립됨)	의존 명사 /매인폴이씨
의미론적 의존성	선행어가 의존 명사를 수식하여 의존 명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므로, 선행어가 의미적 중심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도우므로, 본용언이 의미적 중심(‘수식어+피수식어’의 어순과 대립됨)	의존 명사 /도움폴이씨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에는 ‘의존성 범주’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존성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통사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의존성이 완전히 반대지만,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일치함을 보였다.

참고문헌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71-224.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31-121, 172-194, 333-376, 483-528.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문법』, (주)두산, 80-111, 160-170, 183-191.
- 교육과학기술부(2010),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 (주)두산, 110-116, 123-128, 134-140, 197-209, 221-232.
- 김문기(2007ㄱ), 「매인폴이씨 ‘가다’, ‘오다’의 의미적 특성, 『한글』 276, 한글학회, 155-179.
- 김문기(2007ㄴ), 「매인폴이씨에 나타나는 상과 양태 의미의 상관성, 『한국민족문화』 30,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347-370.
- 김문기(2008), 「매인폴이씨 ‘가다’와 ‘오다’의 인지적 해석, 『우리말연구』 22, 우리말학회, 135-156.
- 김영희(1993), 「의존 동사 구문의 통사 표상, 『국어학』 23, 국어학회, 159-190.
- 나찬연(2010), 『(개정2판) 한글 맞춤법의 이해』, 월인, 191-212.
- 나찬연(2012), 『(제2판)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71-82, 143-187, 223-266, 373-401, 485-528.
- 남기심·고영근(2011), 『(제3판)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43-93, 111-125, 297-332, 370-382, 402-416.
- 박대아(2010), 「대학생 글쓰기의 띄어쓰기 오류 유형과 지도 방안,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331-360.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13-118.
- 우순조(2010), 「띄어쓰기 규정 모호성 개선 방안 연구, 『언어학』 58, 한국언어학회, 205-232.
- 이숙의(2007), 「용언의 구성과 띄어쓰기 방안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34-3,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424-441.
- 임동훈(1998),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국립국어연구원, 43-50.
- 정순기(1988), 『조선어의 보조적 단어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9-117, 187-256.
- 정주리(2007), 「통사의미론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말연구』 21, 우리말학회, 105-127.
- 정희창(2010), 「규범, 사전, 문법의 관계와 내용 구성,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235-258.

- 조미경(2004), 「한글 맞춤법 교육과 사용 실태 분석 및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35, 99-112.
- 채희락(2007), 「접어와 한국어 품사 분류: 품사 재정립 및 띄어쓰기 재고」, 『언어』 32-4, 한국언어학회, 803-825.
- 최정도(2007), 「국어 의존명사 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3-128.
- 허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245-355.

김문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04-714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051-200-7028, 011-591-9342
kimmg5058@hanmail.net

접수 일자 : 9월 10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 9월 16일 ~ 10월 16일
계재 확정 일자 : 10월 19일

〈Abstract〉

A Study on a confusion state about method of dealing
with dependent word in school grammar
—around bound noun and auxiliary predicate—

Kim Mun-Gi (Dong-a Univ.)

This study is aimed at grammatical unit ‘dependent word’ at the school grammar. Word generally has been regarded as independent unit in Korean grammar. But all words have not independent attributes in Korean.

So I research these categories, ‘bound noun’ and ‘auxiliary predicate’ but some researchers argued that these were all in independent category. In Korean orthography, these has been treated as independent category in some part, but as dependent category in some part.

I think these are not to be studied simply. Actually bound noun and auxiliary predicate each has unique characteristics in independent attributes. Thus I investigate each of them carefully at synthetic-semantic perspective. Synthetically, bound noun has dependence but it is head in the construction. Auxiliary predicate also has dependence but it is not head in the construction. Semantically, preceding elements of bound noun and auxiliary predicate are head.

* **key words** : school grammar, the rules of Korean orthography, Korean dictionary, word, independence, dependence, grammatical category, bound noun, auxiliary predicate, word spacing